

중국 주식시장 전망 및 삼성 China2.0본토 펀드 향후 운용전략



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5-178호(2015.03.26~2016.03.25)

▣ 중국 경제 및 주식시장 전망

'뉴노멀'시대에 진입한 중국 경제

이번 전인대 폐막식 직후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중국이 질적 성장을 의미하는 뉴노멀 (신창타이) 시대에 진입한 만큼 7%성장률 목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지만 2분기에 그 저점을 지날 것으로 판단하며 올 해 7%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록 수출 증가율 및 내수 소비가 당면한 어려움이 적지는 않지만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 중국 정부는 재정 및 통화 확장정책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별 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성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산업과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에 중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기업들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이 '뉴노멀'시대에 진입하였다는 것은 비단 향후 몇 년간 낮지만 안정적인 성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에 의존하였던 전통산업들의 공급과잉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반면 신성장 산업들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주식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섹터별 차별성 심화되고 종목별 옥석가리기 본격적으로 시작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중장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을 갖기 보다 섹터별, 종목별로 차별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연말의 대형주 강세장에 이어 올해 초부터 다시 시작된 중소형주의 강세 국면을 지나면서 올 한해 나머지 기간 동안 순수하게 대형주 혹은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다만 일부 대형주들 가운데 국유기업 개혁 혹은 '일대일로' 계획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중소형주들의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하여 성과가 종목별로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도시화 및 소비 업그레이드 추세에 부합하는 종목들의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뉴스나 테마성 스토리의 기대감으로만 상승한 종목들의 경우 매도 압력이 커질 것입니다.



ISSUE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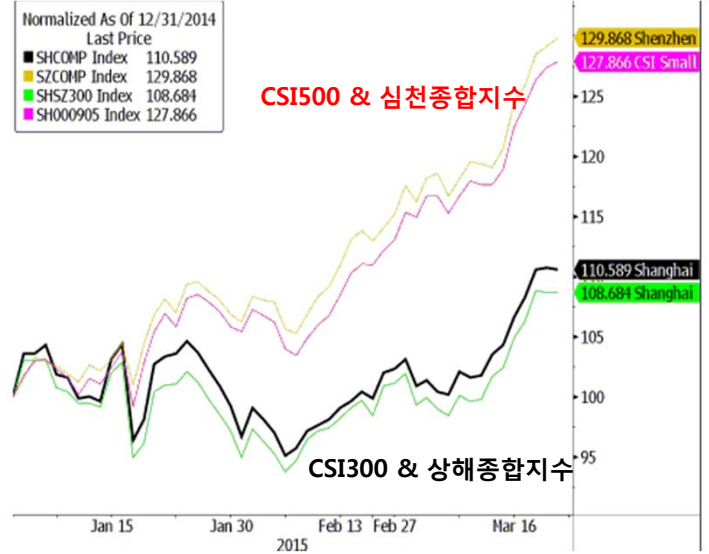
<2014년 4분기 대형주 위주 상승>

기간 2014/10/8 ~ 2014/12/31



<2015년 1분기 이후 중소형주가 상승 견인>

기간 2014/12/31 ~ 2015/3/19



* 출처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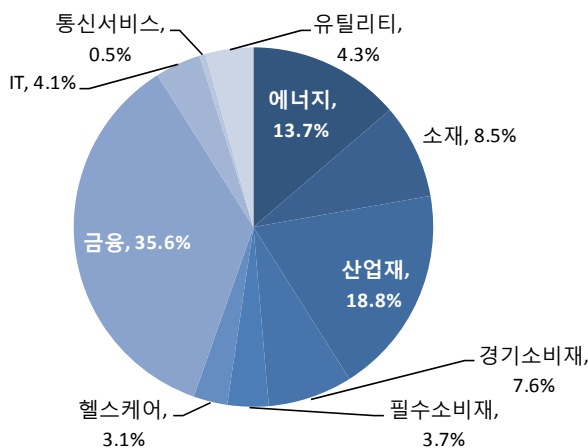
▣ 펀드 운용 전략

단기적으로 중소형주가 증시 추가 견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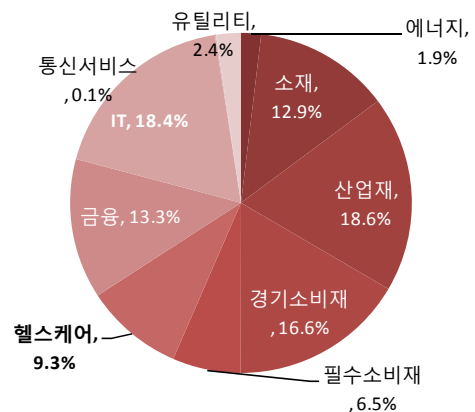
중국 본토 증시는 연초 이후 줄곧 중소형주가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펀드는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15년이 작년의 개혁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해임을 감안하면 IT 및 헬스케어, 소비주 등 전략적 정책 수혜주들의 실적 역시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무엇보다 6월 정도에 실시될 선강통에 대한 기대감이 중소형주 및 심천증시를 추가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도 심천증시의 PER은 26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올 해의 높은 이익 성장률(63% vs 상해종합지수 21.5%, Bloomberg기준)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개혁을 통해 효율성이 증진될 경우 추가적인 주가 재평가(멀티플 상승)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상해종합지수 섹터별 비중 >



< 심천종합지수 섹터별 비중 >



* 출처 : Bloomberg, 2015.3월기준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편입비중의 50%까지 심천주식 확대 투자 계획

펀드는 이처럼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에 중국의 미래가 존재함을 인지하며 해당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형 종목들, 특히 소비 업그레이드와 도시화 및 개혁에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수혜가 예상되는 중소형주를 발굴하고 향후 추진될 선강통이 가져올 기회를 선점하기 위하여 펀드는 심천에 상장된 종목들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편입비중의 50%까지 확대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경우 전반적인 비중은 축소할 예정이나 전통산업 가운데 사업분야를 서비스 및 환경보호 등 신성장 산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는 기업들 및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우량주 등에 대한 비중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적으로는 펀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방위산업, 농업, IT 서비스 같은 정책 수혜주를 핵심 투자 대상으로 삼고 해당 섹터에서의 신규 종목 발굴하여 중장기 안정적인 초과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별 이익 증가율 전망 >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S&P500
2015년 예상 이익증가율	21.5%	63.0%	6.3%
FY2015 PER(배)	14.1	26.6	17.7
ROE(FY2014)	13.0%	9.8%	14.4%

* 출처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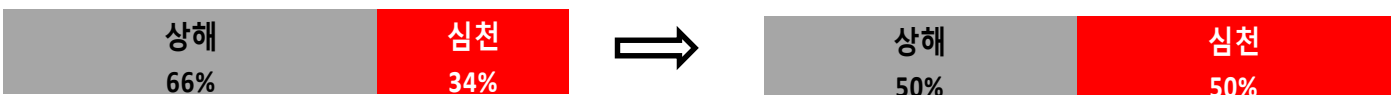
< 펀드 내 심천 지수 비중 확대 계획 >

현재 CSI300 거래소별 비중



현재 삼성 차이나2.0본토 펀드 거래소 별 비중

시장상황에 따라 심천 비중 50%까지 확대 계획



* 출처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2015.1.31 기준 *운용 계획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삼성 China2.0 본토 증권 자투자신탁 제1,2호[주식]

1. 환매방법: 오후 5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8영업일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 지급
2.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3. 신탁보수 등: Class A: 선취판매수수료 1.2% 이내 + 연 1.80% (판매0.89%, 집합투자0.85, 신탁0.06%), Class C1 연 2.41%(판매1.50%, 집합투자0.85%, 신탁0.06%), Class Ce 연 1.90%(판매0.99%, 집합투자0.85%, 신탁0.06%), Class S: 후취판매수수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연 1.26% (판매0.35%, 집합투자0.85, 신탁0.06%)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및 A주 과세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투자상품에의 투자는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환율변동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